

보건교사의 소명의식이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Calling on School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School Health Nurses

김효순*, 이윤신**, 김옥선***, 석소현**
단월중학교*,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Hyo Soon Kim(soons200094@korea.kr)*, Yoonshin Lee(yslee525@khu.ac.kr)**,
Ok Sun Kim(kossunam@naver.com)***, Sohyune Sok(5977sok@khu.ac.kr)**

요약

최근 신종감염병의 등장 및 교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학령기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다양해지면서 보건교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소명의식이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교사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43명이다. 자료수집은 보건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진행하는 한국교총 종합연수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와 sim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건교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중 목적·의미($\beta=.28, p=.011$)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급수($\beta=-.20, p=.006$)의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의 설명력은 30.7%였다. 이에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의미 증진시키고 학급수를 낮추는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보건교사 | 소명의식 | 학교조직몰입 |

Abstract

With the emergence of new infectious diseases and chang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health problems of school-age students are increasing. Accordingly, the role of school health teachers is expanding and becoming more important.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alling on school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school health nurses. Samples were a total of 143 school health nurses working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Gyeonggi-do, South Korea who understood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study. Measures wer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Korea (CVQ-K) and organization commitment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3.0 program. The analyses showed that the prediction model for school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school health nurses was significant ($F=16.142, p<.001$). The value of the adjusted R^2 was 0.307, which corresponds to the explanatory power of 30.7%. The factor that was found to have the most influence on school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school health nurses was purpose/meaning ($\beta=.28, p=.011$), followed by number of classes ($\beta=-.20, p=.006$). In order to improve the school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school health nurses, the purpose/meaning and the number of classes should be considered.

■ keyword : | School Health Nurse | Calling | School Organizational Commitment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행위의 실천에 필요한 건강지식과 건강관리방법을 습득하도록 돕는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1]. 특히, 학령기의 건강지식과 태도는 건강행위로의 실천이 용이하며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형성하여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이다[2]. 이에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보건교육이 의무화되면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를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 명시하고 있다. 즉, 학생의 신체발달과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3]. 최근 학령기 학생들의 건강문제는 비만[4], 스마트폰중독과 게임중독[5][6], 성폭력, 흡연, 자살, 우울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7].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신종감염병의 등장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환경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체적으로 감당하는 보건교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있다[8][9]. 이렇듯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보건교사는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직 교사로서 또 의료인으로서 자신에 능력에 대한 신념과 역량이 필요하다[10]. 그러나 보건교사가 일선 학교에 배치된 후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가 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업무지시나 통제 등 93.1%가 법적직무 이외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으며[11], 왜곡된 역할기대로 학교환경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보건교사 개인의 삶뿐 아니라 학생들의 보건 및 총체적 학교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며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상황을 유발시킬 수 있다[13]. 이에 보건교사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와 직무수행태도의 긍정적 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건강과 학교보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14].

조직몰입은 조직구성원으로 남으려는 강한 욕구,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심리적 애착 및 헌신이라 정의된다[15]. 조직몰입도가 높은 사람은 일이 자신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며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낮은 이직률과 결근율을 보인다[16]. 결과적으로 높은 업무수행과 조직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3]. Becker 등[17]은 조직몰입 수준이 높으면 담당 업무에 만족하고 헌신하는 경향이 높으며, 높은 조직몰입은 교육의 질 제고와 교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보건교사들이 전문직 교사로서 자신의 직무와 소속학교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10], 김유현 등[18]은 조직몰입은 교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학교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와 간호사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8-20],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는 업무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이직의도가 낮아서 조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0]. 박진옥과 정귀임[21]은 간호사들의 소명의식은 조직몰입과 재직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소명의식이란, 일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며, 단순히 자신이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자기 일의 영향력을 넓게 생각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22].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건교사의 역할인식[23], 직무스트레스와 우울[8][13], 교사효능감과 역할갈등이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10]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보건교사의 소명의식과 학교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소명의식이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신종감염병 등장을 포함하여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학령기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들의 조직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중재방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교사의 소명의식과 학교조직 몰입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소명의식이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조직 몰입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소명의식과 학교조직몰입의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소명의식과 학교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소명의식이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3. 연구가설

소명의식에 대한 Dick, Duffy와 Eldrige[24]와 조직몰입 분류에 대한 Meyer과 Allen[25]의 개념들을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교사와 간호사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정도가 높으며, 조직몰입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소명의식과의 관계를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들[10][18-20]과 간호사의 소명의식이 조직몰입과 재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21]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소명의식과 학교조직몰입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소명의식이 학교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모형은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소명의식이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교사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80명을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이는 김문정, 이유미 [26]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으며,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간 효과크기(f_z) .15,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5로 설정하였고, 예측변수 5개로 필요한 표본수는 138명이었다. 이에 탈락율을 고려하여 18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169부(93.9%)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 25부를 제외한 총 143부(84.6%)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9년 7월 23일부터 8월 9일까지였다. 경기도 교육청 주관하에 보건교사 대상으로 하는 “의료인 보수교육과 연계한 보건교사 직무연수”을 진행하는 한국교총종합연수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사전에 연수 담당자에게 사전에 전화로 협조를 구하였으며, 당일 강의실에서 보건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한 대상자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휴식시간에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시간은 15~20분이었으며 설문지 응답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연구도구

3.1 학교조직몰입

학교조직몰입은 Meyer와 Allen[24]의 조직몰입 도구를 박용진[27]이 표준화하여 재구성하고, 박영주[28]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정서적 몰입(5문항), 지속적 몰입(3문항), 규범적 몰입(5문항)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총 13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13점~6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조직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영주[28]의 연구에서 학교조직몰입 Cronbach's α 는 .87,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정서적몰입 Cronbach's α 는 .78, 지속적 몰입

Cronbach's α 는 .67, 규범적 몰입 Cronbach's α 는 .79였으며, 본 연구에서 학교조직몰입 Cronbach's α 는 .88,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정서적 몰입 Cronbach's α 는 .79, 지속적 몰입 Cronbach's α 는 .67, 규범적 몰입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3.2 소명의식

본 연구에서는 Dick, Sargent와 Steger[29]가 개발하여 실증적 검증을 통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CVQ)를 심예린, 유성경[30]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안한 소명의식척도 한국판(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Korea; CVQ-K)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초월적인 부름(4문항), 목적 또는 의미(4문항), 친사회적 성향(4문항)의 3개 하위영역 총 12문항이며 3번 문항은 역변환하였다. 점수범위는 12점~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예린, 유성경 [30]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5였으며, 초월적 부름의 Cronbach's α 는 .83, 목적·의미 Cronbach's α 는 .74, 친사회적 지향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전체 Cronbach's α 는 .93, 초월적인 부름의 Cronbach's α 는 .94, 목적·의미 Cronbach's α 는 .92, 친사회적 지향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0000-00-0000)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자, 연구절차,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 연구의 참여동의를 대한 내용과 비동의, 참여중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포함한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를 제공하였다. 서면동의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시작함으로써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기호화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명의식, 학교직무몰입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이용하였다.

- 보건교사의 소명의식과 학교직무몰입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보건교사의 소명의식이 학교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조직몰입 정도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는 초등학교에 재직한 경우가 70.6%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15.4%, 고등학교는 14%의 순으로 파악이 되었다. 학급수는 18~34학급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의 경우 40대가 42.7%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이 36.4%로 나타났다. 교직경력 10년 미만인 44.8%로 가장 높았으며 20년 이상이 29.4%, 15~20년이 14%였다. 최종학력의 경우 학사 68.5%, 석사가 15.4%, 전문학사 13.3%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조직몰입 정도는 학급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F=5.801, p<.001$), 6학급 이하 근무 집단이 가장 높은 학교조직몰입을, 35학급 이상이 가장 낮은 학교조직몰입을 보였다. 즉, 학급수가 많을수록 학교조직몰입 정도가 감소하였다(표 1).

2. 보건교사의 소명의식과 학교조직몰입정도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몰입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2(\pm .65)였으며, 하위요인 중 규범적 몰입이 평균 3.65(\pm .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몰입 3.59(\pm .69)점, 지속적 몰입 3.32(\pm .88)점 순이었다. 소명의식의 경우 5점 만점에 3.73(\pm .69)점이었으며,

하위요인 중 목적·의미가 3.91(±.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친사회적 지향이 3.86(±.71)점, 초월적 부름이 3.41(±.95)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조직몰입정도 (N=143)

변수	n	(%)	학교조직몰입	
			M±SD	F(p) Scheffé test
학교급	초등	101	70.6	3.46±.69
	중등	22	15.4	3.66±.55
	고등	20	14.0	3.66±.52
학급수	≤6	19	13.3	3.78±.61
	7-17	27	18.9	3.77±.57
	18-34	64	44.8	3.52±.60
	35≥	33	23.1	3.18±.71
연령 (세)	20-29	10	7.0	3.20±.51
	30-39	20	14.0	3.38±.65
	40-49	61	42.7	3.50±.70
	50≥	52	36.4	3.67±.61
	≤10	64	44.8	3.62±.61
교직경력 (년)	11-15	17	11.9	3.27±.70
	16-20	20	14.0	3.46±.78
	20)	42	29.4	3.49±.61
교육정도	전문학사	19	13.3	3.82±.65
	학사	98	68.5	3.48±.65
	석사	22	15.4	3.50±.68
	박사	4	2.8	3.16±.34

*p<.05, †Scheffé test.

표 2. 보건교사의 소명의식과 학교조직몰입정도 (N=143)

변수	MIN	MAX	Mean±SD
학교조직몰입	1.58	5.00	3.52±.65
정서적몰입	1.80	5.00	3.59±.69
지속적몰입	1.33	5.00	3.32±.88
규범적 몰입	1.60	5.00	3.65±.79
직업소명의식	2.00	5.00	3.73±.69
초월적부름	1.00	5.00	3.41±.95
목적·의미	2.00	5.00	3.91±.74
친사회적 지향	1.00	5.00	3.86±.71

3. 보건교사의 소명의식과 학교조직몰입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소명의식은 학교조직몰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46, p<.01$). 소명의식의 하위요인과 학교조직몰입과의 상관관계는 초월적 부름

($r=.36, p<.01$), 목적·의미($r=.46, p<.01$), 친사회적지향($r=.37,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3].

표 3. 소명의식과 학교조직몰입 간 상관관계 (N=143)

변수	학교조직몰입(r)
직업소명의식	.46**
초월적 부름	.36**
목적·의미	.46**
친사회적지향	.37**

**p <0.01

4. 보건교사의 직업소명의식이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학급수를 포함하여 소명의식의 각 하위영역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F=16.142, p<.001$). 회귀분석 전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범위는 .41~.94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는 1.06~2.42로 기준치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분석에서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검정결과 1.84로 2에 가까웠으며, 정규 P-P도표에서 회귀표준화 잔차들은 대각선 직선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산점도에서 잔차의 이분산성이 보이지 않아 잔차의 정규분포와 등분산,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교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중 목적·의미($\beta=.28, p=.011$)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급수($\beta=-.20, p=.006$)의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은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몰입을 30.7% 설명하였다[표 4].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몰입정도는 3.52점

표 4. 보건교사의 소명의식이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N=143)

변수	B	S.E.	β	t (p)
constant				
초월적 부름	.26	.19	.12	1.37 (.174)
목적·의미	.78	.30	.28	2.59 (.011*)
친사회적 지향	.41	.28	.14	1.47 (.14)
학급수	-1.76	.63	-.20	-2.80 (.006*)
Adjusted R ² =.307, F=16.14, p<.001				

*p<.05

(5점척도)이었다. 학교조직몰입의 하위요인 중 규범적 몰입이 3.65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몰입 3.59점(5점 척도), 지속적 몰입 3.52점(5점척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몰입이란 조직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몰입이며, 정서적 몰입이란 조직에 대한 애착과 헌신하겠다는 심리적 상태, 지속적 몰입이란 이직할 때 포기해야만 하는 이익과 조직이 부여하는 혜택으로 인해 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31]. 이은희 등[32]의 연구에서 임상간호사들은 재직의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므로', '가족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픈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 사명감과 책임감에 대한 규범적 몰입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몰입에 대한 최은심과 박철홍[10]의 연구에서 학교조직몰입 점수는 3.48점, 같은 도구를 사용한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몰입 점수는 2.95점[33], 병원간호사의 조직몰입점수는 2.97점이었[34]. 이를 통해 임상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일반교사보다 보건교사의 조직몰입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건교사의 소명의식은 3.73점(5점척도)이었으며, 하위요인 중 목적·의미 점수가 3.91점(5점 척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진옥, 정귀임[21]의 임상간호사의 소명의식 점수는 2.31점이었으며, 하위요인에서는 목적·의미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보건교사의 소명의식이 임상간호사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위요인에서 목적·의미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와 일관

된 바이다. 이에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 보건교사 모두 자신의 업무에 대해 의미를 찾고 전문직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함을 유추할 수 있다[21].

본 연구결과에서 보건교사의 직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중 목적·의미가 긍정적인 영향을, 학급수가 많은 것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은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몰입을 30.7% 설명하였다.

대학병원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조직몰입에 대한 김문정과 김소희의 연구[34]에서 역시 소명의식의 하위요인인 목적·의미가 조직몰입을 설명하는 유의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숙자와 전진호의 연구[35]에서는 보육교사의 목적·의미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직무몰입 정도가 높았으며, 김유현 등[18]의 연구에서 역시 초등학교의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직무몰입 수준이 높다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Hirschi[36]는 직업소명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내적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의미를 찾아 헌신적으로 몰두함으로써 직무몰입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에 보건교사 역시 자신의 업무에 전문적 의미를 찾고 그 업무에 헌신함으로써 학교조직몰입이 높아졌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보건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조직몰입 정도에서 학급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학급 이상의 근무 집단에서 직업소명의식, 학교조직몰입이 가장 낮았으며, 학교조직몰입은 6학급 이하, 7-17학급 집단과 35학급 이상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월 1일부터 재량활동을 이용한 학급별 보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재량활동을 이용한 학급별 보건교육이란, 초등학교의 경우에 5, 6학년대상 재량활동시간에 연간 각각 17시간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중, 고등학교의 경우 2010년부터 선택과목에 보건과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3], 보건교사의 업무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의 확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의 인력은 학교인구 또는 학교규모와 상관없이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하여 "초등학교 18학급 이상에 보건교사 한 명을 두며, 18학급 미만에는 1인을 둘 수 있다"라는 배치기준을 따르고 있다[37]. 즉, 학급 수에 상

관없는 배치규정으로 과대학급에도 보건교사들은 한 학교당 한 명만 근무하여 부과된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COVID-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출현 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량 증가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보건교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10], 학생들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윤미[11]는 일선 학교현장에서 보건교사는 보건의교육과 보건실 운영 외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일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과대학급에 따른 역할 과부하로 인하여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대유[38]는 곧 미래를 책임지게 될 학생들의 보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업무과다는 학생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8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하는 등의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보건환경 속에서 보건교사의 소명의식이 학교조직몰입에 영향을 주게 됨을 확인함으로써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몰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명의식의 하위요인 중 목적·의미를 증진시키고 학급수를 낮추는 중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메르스, COVID-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의 등장 등으로 인해 학교보건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교사의 업무부담과 관련하여 법적 직무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의 행정적,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초·중·고교 보건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횡단적 조사연구로 변수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이에 대상자수와 자료수집 방법을 확대한 후속연구에 본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몰입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의한 예측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 소명의식 증진을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학급수가 많아질수록 학교조직몰입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적절한 학급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조직차원에서의 행정적 지원 및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교사의 학교조직몰입 증진이 학교보건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 문헌

- [1] 최은심, 박철홍,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역할갈등이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제31권, 제1호, pp.135-153, 2015.
- [2] 권수자 외, 학교보건, 수문사, 2014.
- [3] 법제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4] K. S. Sung, Y. M. Yoon, and E. J. Kim,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obesity management program for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9, No.4, pp.262-269, 2013.
- [5] H. Y. Koo, “Effects of a prevention program for media addiction on television addiction, internet addiction, cellular addiction, and impulsive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9, No.4, pp.270-281, 2013.
- [6] 김경미, 염유식, “청소년의 매체중독과 주관적 행복·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제8권, 제48호, pp.121-142, 2018.
- [7] H. S. Song and H. S. Shin, “A predictive model of behavioral problem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20, No.1, pp.1-10, 2014.
- [8] 오경옥, 강문희, 이선현, “일지역 보건의교사의 지각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6권, 제1호, pp.60-71, 2012.
- [9] <http://www.yitoday.com/news/articleView.htm?idxno=62790>, 2020.02.20.
- [10] 최은심, 박철홍, “보건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역할갈등이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제31권, 제1호, pp.135-153, 2015.
- [11] 우윤미, 보건의교사의 법적 직무에 관한 연구, 경기대

-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12] J. O. Kwon and J. Oh, "Role expectation and role performance in school health teachers recognized by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teach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 1, pp.36-43, 2011.
- [13] J. Oh and J. O. Kwon, "Job identity and job stress on elementary school health teac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1, No.3, pp.341-350, 2010.
- [14] J. P. Meyer, "Employee Commitment and Motivation: A Conceptual Analysis and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9, No.6, pp.991-1007, 2004.
- [15] R. T. Mowday, L. W. Porter, and R. M. Steers, "Employee-organization linkages: The psychology of commitment, absenteeism, and turnover," New York: Academic Press, pp.135-167, 1982.
- [16] J. P. Meyer, T. E. Becker, and C. Vandenberghe, "Employee commitment and motivation: A conceptual analysis and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9, No.6, pp.991-1007, 2004.
- [17] T. E. Becker, M. C. Kernan, K. D. Clark, and H. J. Klein, "Dual commitments to organizations and professions: Different motivational pathways to productivity," *Journal of Management*, Vol.44, No.3, pp.1202-1225, 2018.
- [18] 김유현, 김지용, 김유미, "초등교사의 소명의식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향상초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제28권, 제22호, pp.99-111, 2019.
- [19] 윤소천, 이지현, 손영우, 하유진, "소명의식이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심리적 자본과 조직 동일시의 매개효과와 변혁적 리더십, 지각된 상사지지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0권, 제4호, pp.61-86, 2013.
- [20] J. O. Park and K. I. Jung, "Effects of advanced beginner-stage nurses' sense of calling,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retention int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2, pp.137-147, 2016.
- [21] 박진옥, 정귀임, "상급초보 간호사의 소명의식, 직무만족, 조직몰입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호행정학회지*, 제22권, 제2호, pp.137-147, 2016.
- [22] B. J. Dik, Development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meet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 [23] 이정희, 이병숙, "초등학교 보건교사의 자기역할인식,"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1권, 제4호, pp.398-408, 2010.
- [24] B. J. Dick, R. D. Duffy, and B. M. Eldrige, "Calling and vocation in career counseling: Recommendations for promoting meaningful work,"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Vol.40, pp.625-632, 2009.
- [25] J. P. Meyer and N. J. Allen,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1, No.1, pp.61-89, 1991.
- [26] 김문정, 이유미,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명의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소재 대학병원의 일반간호사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10권, 제3호, pp.27-37, 2016.
- [27] 박용진, "학교장의 슈퍼리더십과 교사의 셀프리더십이 교사의 학교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제25권, 제3호, pp.181-209, 2008.
- [28] 박영주,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수행 준비도, 학습민첩성, 직무자율성, 학교조직 문화, 학교조직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29] B. J. Dick, A. M. Sargent, and M. F. Steger, "Career development strivings: Assessing goals and motiva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plann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35, No.1, pp.23-41, 2008.
- [30] 심예린, 유성경, "한국판 소명 척도(CVQ-K)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제24권, 제2호, pp.847-872, 2012.
- [31] W. Y. Jung, "The effects of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perceived by teachers on their teacher efficacy and organizational

- commitme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23, No.2, pp.73-90, 2005.
- [32] 이은희, 조경숙, 손행미, “병원간호사의 재직의도,” 임상간호연구, 제20권, 제1호, pp.15-27, 2014.
- [33] 전현선, *초등교사가 지각한 조직 갈등이 직무만족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34] 김문정, 김소희, “일 지역 대학병원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직업가치,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10권, 제1호, pp.67-77, 2016.
- [35] 김숙자, 전진호, “보육교사의 소명의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22권, 제2호, pp.173-194, 2018.
- [36] A. Hirschi, “Callings and work engagement: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workmeaningfulness, occupational identity, and occupational self-effica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9, No.3, pp.479-485, 2012.
- [3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20.02.22.
- [38] 김대유, “보건교사의 법적직무에 관한 쟁점과 논의,”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3권, 제1호, pp.1-22, 2017.

저 자 소 개

김 효 순(Hyo Soon Kim)

정회원



- 2004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20년 2월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관심분야〉 : 보건교육, 직무만족

이 윤 신(Yoonshin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2년 8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09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19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객원교수

〈관심분야〉 : 만성질환자간호, 스마트헬스케어

김 옥 선(Ok Sun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2009년 8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경북전문대

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 한방간호

석 소 현(Sohyune Sok)

정회원



- 1992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5년 8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01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관심분야〉 : 노인간호, 한방간호